

희망의 유산(遺産)

— 혜환 이용휴 만시(挽詩) 연구 —

허윤진*

차례

1. 타자로부터 오는 시
2. 비탄을 넘어선 위로
 - 2.1. 죽음에 대한 종교-경제학적 정의
 - 2.2. 애도하는 가족에 대한 기억
3. 인격에 대한 예술적 해석
4. 꺾이지 않는 영혼의 시

| 국문초록 |

만시를 비롯한 애도문학은 장르의 관습이나 창작의 계기가 미학보다 우세하여 예술적인 개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곤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혜환 이용휴(李用休, 1708~1782)의 만시에서는 장르가 가지는 관습적인 성격이 타자지향적인 윤리의 문제로 전환됨으로써, 윤리학과 미학이 이상적으로 결합된다.

혜환은 조물주나 하늘을 비롯한 신적 타자를 인간 존재의 주인으로 보는 경제학적 논리로써 죽음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킨다. 이로써 과도한 비탄은 혜환의 만시에서 약화되고 오히려 부활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나타난다. 동시에 혜환은 애도자로서의 시인 자신이 지닌 감정을 절제하고, 고인뿐만 아니라 애통해 하는 유족들을 힘써 기억하고 재현함으로써 가족공동체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인다.

타자를 중심으로 한 윤리학적인 시선을 견지하는 혜환은 고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상투적인 칭양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만시에서는 입신출세보다는 학문과 문학, 인격 면에서의 고양에 의미를 부여하는 미학적인 해석이 칭양을 대신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요컨대 혜환 이용휴의 만시는 죽음에 대한 비관이나 허무를 초월하여 신적 타자, 망자,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강사

유족, 애도자로서의 시인 자신, 그리고 현재의 독자들까지도 공동체적으로 결속시키고 위로 하는 문학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이윽, 만시, 비탄, 칭양, 윤리학과 미학

1. 타자로부터 오는 시

누군가의 생일(生日)은 누군가의 기일(忌日)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태어나는 지금, 또 다른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일상이고 역사이다.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되는 공통적인 결말은 바로 죽음이다.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인간의 유한 자적 운명만큼은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에 문학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 탐구할 때, 그 누구든 공감할 여지가 있는 가장 보편적인 주제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 될 것이다.

한국 문학사에서 죽음에 관한 문학적 글쓰기가 가장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는 조선 시대이다. 물론 죽음은 보편적인 인간 현상이기에 <공무도하가>, <제망매가> 등 한국 고대문학의 연원에서부터 중요한 문학적 주제가 되어왔다. 하지만 유교적인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기반한 다양한 작품들이 창작되었던 조선 시대는 죽음과 관련된 글쓰기의 측면에서 분명히 독보적이다.

유교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양(陽)의 기운인 혼(魂)은 하늘로, 음(陰)의 기운인 백(魄)은 땅으로 흩어지는 작용으로 여기고, 특별한 사후세계를 가정하지 않는다. 사후세계를 별달리 인정하지 않는 유교에 근간을 둔 조선 사회에서, 망자(亡者)를 애도하는 글쓰기가 널리 자리 잡은 것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유교적 관점에서는 사후세계가 없고, 존재의 지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이 망자(亡者)를 기억의 형태로나마 지속시키는 방법으로서 글쓰기가 중요했을 것이라고 본다. 소위 비지전장(碑誌傳狀)이라고 통칭하는 묘비명(墓碑銘), 묘지명(墓誌銘), 전(傳), 행장(行狀)뿐만 아니라 제문(祭文), 뇌문(誄文) 등 죽은 이의 삶을 기억하고 기리는 조선 사회의 글쓰기 장르들은 사후 세계를 가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망자의 존재를 회복하는 방식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¹⁾

위의 글쓰기 장르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애도와 추념’이고, 대체로 의례(儀禮)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습적인 유형을 따른다. 타인의 죽음 앞에서 글쓴이가 창작 상의 개성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예(禮)를 벗어난 행동이 되므로, 애도의 상황에서 글쓰기의 미덕이란 삶과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습과 윤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혜환(惠寰) 이용휴(李用休, 1708~1782)의 만시(挽詩)는 ‘망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존재를 기린다’는 애도 문학의 기본 대의에 일단 충실하면서도 장르 자체의 기능과 의미를 개성적으로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²⁾ 최재남이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에 걸친 애도시 작품들을 분석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애도시에서는 대체로 비탄(悲嘆), 진혼(鎮魂), 칭양(稱揚)의 요소들이 적절히 혼재되어 나타난다.³⁾ 그런데 혜환의 만시에서는 애도시의 핵심

-
- 1)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57~58쪽. 저자는 죽음에 관한 유교적 글쓰기 장르들이 망자(亡者)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를 불멸의 존재로 남기고자 하는 열망과 관련되어 있다고 논한다. 안대회 역시 만시가 조선조에 들어와서 보편화 된 것은 조선 시대 상례의 보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논의한다. 안대회, 「한국 한시와 죽음의 문제 - 조선 후기 輓詩의 예술성과 인간미」, 『한국한시연구』 3집, 한국한시학회, 1995, 50쪽.
 - 2) 혜환이 남긴 묘비명, 묘지명, 묘갈명, 전(傳), 행장, 뇌문 등이 각각의 장르가 가지는 관습에 비교적 충실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혜환의 만시는 저자의 애도문학 작품들 중에서도 위상이 독특한 편이다.
 - 3) 최재남, 「한국 애도시의 구성과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28쪽. 저자는 중국의 애도시와는 달리 한국의 애도시에서는 진혼(鎮魂)이 약화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안대회는 최재남의 논의를 인용하여 한국 한시에서는 비탄과 칭양의 정서가 주되게 나타난다고 서술하였다. 이때 개인적 친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탄이, 사회적 명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칭양이 강조된다고 보았다. 안대회, 앞의 논문, 56쪽.

정서이자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비탄’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⁴⁾

애도시에서 비탄이 약화되어 있다는 이 역설적인 사실은 혜환의 만시가 지닌 윤리적인 성격과 결부된다. 비탄은 애도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의미를 갖는 구성요소이다. 혜환은 만시 장르의 타자지향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만시는 애도대상으로서의 고인(故人), 애도자이자 잠정적인 독자로서의 유족 및 지인들, 애도자로서의 시인의 관계성 속에서 온전한 의미가 구현되는 장르이다. 혜환에 따르면 만시는 창작자인 시인 자신이 중심이 되는 장르가 아닌 것이다. 애초에 창작의 계기가 타자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혜환의 만시는 독자에게 모종의 미학적인 인상과 희망적이기까지 한 분위기를 남긴다. 그의 만시는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부정성을 대면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삶을 응시하고 지속하는 데에 필요한 생명력을 독자에게 전한다. 이런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혜환이 만시의 주된 목적과 기능을 위로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시의 중심 기능이 ‘애도자 개인의 비탄’에서 ‘애도하는 공동체를 위한 위로’로 윤리적인 전환을 맞는 점을 중요하게 살핀다. 이때 혜환 만시의 윤리적 전망은 생사의 주관적인 신적 타자와 맺는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성과, 남겨진 가족들과 맺는 시인의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애도시의 또 다른 요소인 칭양은 과장된 미사여구로 나타나 많은 만시 작품들을 친편일률적인 미담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했다. 그런데 혜환의 만시에서는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가 칭양의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고인에 대한 의미 없는 상찬 대신, 지위나 연령의 고하와는 무관한 한 인격 자체에게서 발견되는 예술적인 가치가 의미 있게 평가된다. 우리는 이것을 ‘칭양에서 ‘해석’으

4) 김동준은 이용휴 한시에 나타나는 지성적 사유를 중시하면서, 이용휴의 만시에 오열이 없는 것은 그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관조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죽음을 객관화함으로써 오히려 죽음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준, 「이용휴 한시의 이지적 성향과 새로운 시적 형식」, 『진단학보』 95집, 진단학회, 2003, 270~271쪽.

로의 전환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혜환의 만시 40제 174수⁵⁾를 대상으로 하여, ‘비탄과 칭양의 요소를 중심으로 창작되었던 기존의 한국 애도시와 달리, 혜환의 만시가 어떻게 ‘위로와 해석’이라는 새로운 윤리학적·미학적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비탄을 넘어선 위로

2.1. 죽음에 대한 종교-경제학적 정의

혜환의 만시에도 대부분의 애도시에 나타나는 관습적인 내용이 없지는 않다. 혜환은 여러 작품들에서 남은 이들이 얼마나 슬픔을 느끼고 있는지, 망자가 생전에 어떤 덕으로 주위를 감화했는지, 망자가 생전에 머물렀던 거처나 사용했던 물건들이 어떤 존재감을 주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술회한다. 절구(絶句) 형식⁶⁾의 간명한 작품들은 한 수(首)도 무념히 지나치기 어려울 정도로

5) 혜환의 만시는 그의 시문집인 『惠寰居士詩集』에 29제 91수, 『數畝集』에 20제 121수, 정약용의 『與猶堂全書』에 1제 1수가 실려 있다. 서로 겹치는 작품들을 제외해서 정리하면 혜환의 만시는 총 40제 174수가 된다. 본고에서는 『惠寰居士詩集』을 저본으로 삼고, 시를 인용할 때는 수록되어 있는 판본과 시의 제목, 쪽수를 표기하기로 한다. 시의 번역은 다음의 번역본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자가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만시에 등장하는 인물에 관한 전기적인 정보도 번역본에 주석으로 밝혀져 있는 경우에는 참고, 인용하였다. 다만 인물들의 약 3/4 정도가 벼슬을 하지 않은 이들이어서 전기적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용휴, 조남권·박동욱 옮김, 『혜환 이용휴 시전집』, 소명출판, 2002.

6) 하정승은 만시의 시형(詩型) 면에서 고려 시대의 목은 이색(李穡, 1328~1396), 포은 정몽주(鄭夢周, 1337~1392), 도은 이승인(李崇仁, 1347~1392)이 오언절구로는 만시를 거의 짓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언절구가 너무 짧은 형식이어서 망자를 충분히 추모하고 애도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은 형식이었으리라고 논의한다. (하정승, 「이승인의 挽詩類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한국한시연구』 21집, 한국한시학회, 2013, 120쪽.)

한편 김동준은 혜환의 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송시(送詩)와 만시(挽詩)가 대부분 오언

깊은 울림이 있다.

혜환의 만시에 이처럼 우리가 흔히 애도시에서 기대하게 되는 요소들이 있다고는 해도, 분명히 많은 애도시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애도시로서의 시인 자신이 가진 비탄의 요소가 직접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혜환이 친구인 선비 유사상(柳士常)의 부고를 들은 순간을 묘사하면서 “밭바닥에서 한 점의 시큰한 기운이/ 곧바로 정수리까지 사무쳤네.”⁷⁾라고 쓴 표현 정도가 시인이 몸으로 느끼는 슬픔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낸 구절일 정도이다.

혜환이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 그의 만사에서 시인의 비탄이 전경화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그의 만시가 대부분 애도시의 분류상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도망시(悼亡詩), 자손의 죽음을 애도하는 곡자시(哭子詩), 형제자매의 죽음을 애도하는 곡형제시(哭兄弟詩)가 아니라 지인 및 친우의 죽음을 애도하는 도봉시(悼朋詩)에 속한다는 점에 유념해볼 수 있다.⁸⁾ 비탄의 정도가 망자와 시인 사이의 친소(親疏)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면 혜환의 만시가 대체로 도봉시에 속하기 때문에 비탄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끼는 제자 이언진(李彦璵, 1740~1766)을 비롯한 가까운 지인들은 혈연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매

절구 연작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고품을 띤 혜환의 오언고절 연작시는 오히려 각 편이 순간적인 시상을 압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으며, 연작 전체를 보면 감정의 변화나 시간의 경과 등을 오히려 총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논한다. (김동준, 「혜환 이용휴의 오언고절 연작 연구」, 『국문학연구』 7집, 국문학회, 2002, 258쪽.)

어떤 특정한 시 형식에는 미리 결정된 주제나 내용이 없다고 본다. 대부분 오언절구 연작인 혜환의 만시는 겉으로 보기에 만시라는 장르에 걸맞지 않는 시체(詩體)로 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혜환이 시인으로서 가진 재능과 안목은 바로 오언절구의 단순성을 활용한 연작시로 삶의 순간성과 입체성을 포착해낸 데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어떤 시체가 그 자체로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시인의 주제의식과 표현기법에 걸맞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7) “使者傳公訃，恒然久無言。足心一點酸，直透至頂門。”李用休，〈挽柳友士常〉 제3수, 『惠襄居士詩集』, 121쪽; 李用休, 〈柳友士常挽〉 제5수, 『巖叟集』, 6쪽.

8) 최재남, 앞의 논문, 4쪽.

우 친밀한 이들이기에, 도봉시라고 해서 가족의 죽음에 관한 다른 애도시에 비해 비탄이 약화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본고에서는 혜환의 만사에서 애도자로서의 시인이 지닌 비탄이 전경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의 독특한 사생관 때문이라고 본다. 혜환은 흥미롭게도 죽음을 신적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로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신적 타자’의 범주에 속하는 시어로는 조물주(造物), 하늘(天) 등이 사용되는데, 조물주가 대표적이다.⁹⁾

혜환의 만사에서 신적 타자는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여기까지는 다른 문인들의 사생관과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점은 신적 타자가 가문으로 표상되는 공동체에 어떤 한 사람을 주었다고(“與”) 보는지, 아니면 빌려주었다고(“借”) 보는지에 따라 신적 타자에 대한 인간들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¹⁰⁾

우선 사람을 신적 타자에 의해 공동체에 주어지는 존재로 본다면, 신적 타자와 인간은 증여자와 수혜자로서 경제적 관계를 맺게 된다. 신적 타자가 공동체에 증여한 것은 공동체 내부의 소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자가 선물로 주었던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스스로 위반하고 선물을 빼앗아가는 것이 된다.

既與而復奪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 가면

9) 《挽吳斯文錫一》 제2수에는 죽음과 관련하여 ‘저승의 관리(冥司)’라는 백화체 표현이나 ‘귀신’ 같은 시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世人愛才心，誰似鬼神篤。主司所不收，冥司乃急錄。” 李用休, 『惠襄居士詩集』, 121쪽; 李用休, 『徽數集』, 5쪽.

그런데 이런 존재들은 조물주나 하늘처럼 사람을 생겨나게 하고 사람을 소유한다는 창조자-소유주로서의 의미는 갖고 있지 않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선비인 오석일을 위한 이 만사에서 혜환은 과거를 담당했던 관리와 다르게 저승의 관리는 오석일의 이름을 “급히 기록(急錄)”했다고 표현함으로써, 죽음에 등과(登科)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죽음의 의미가 낙관적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10) 박동옥은 이용휴 만시를 다룬 논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조물주에게서 빌린 삶의 문제를 언급하며, 조물주와 인간의 관계를 채관-채무 관계의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박동옥, 『혜환 이용휴 挽詩放』, 『온지논총』 7권 1호, 2001, 온지학회, 2001, 124~126쪽.

所以恩怨作 그로 인해 은원(恩怨)이 생기는데
造物於君家 조물주가 그대의 가문에
無端誤一着 이유 없이 또 한 번 잘못했구나.

- 〈姨弟李孝先挽〉 제3수¹¹⁾

혜환의 이종사촌 동생인 이효선에 관한 위의 만시에서 조물주는 한 가문에 주고(“與”) 또 빼앗아 갈 수 있는(“奪”) 권한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증여된 삶에 대한 감사도, 박탈된 삶에 대한 원망도, 모두 조물주에게로 향하고 있다. 증여자로서의 조물주가 증여를 취소한 상황에서, 혜환은 경제적인 일반 관념을 들어 죽음의 탓을 조물주에게 돌린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신적 타자를 경홀히 여기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조물주가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초월자임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韓景賓挽〉에서도 사람을 어떤 뜻을 가지고 생기게 하더니 또 까닭 없이 죽게 하는 조물주는 헛수고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¹²⁾

이처럼 시인이 고인과 유족을 대신해 조물주를 탓하는 것은 사람을 신적 타자에 의해 생겨나고 증여되는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증여-수혜 관계를 합리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쪽은 신적 타자이기에 인간은 감히 그를 원망해도 되는 것이다.

반면 인간존재를 신적 타자에게서 빌린(“借”)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죽음이 계약의 정당한 완수이기 때문에 신적 타자를 탓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사람을 주인에게서 ‘빌린 존재’로 비유하는 시 두 수를 연이어 인용해 보기로 한다.

寄寶於他所 보배를 다른 곳에 맡겼을 제는

11) 李用休, 『惠襄居士詩集』, 121쪽; 李用休, 『叡數集』, 5쪽. 『惠襄居士詩集』에는 이 시가 총 1제 2수 중 제2수로 되어 있다.

12) “始若有意生, 又忽無端死. 四十一年間, 造物徒勞爾.” 李用休, 〈韓景賓挽〉 제1수, 『叡數集』, 8쪽.

取還不經夜 하룻밤이 안 되어서 찾아오는데
 幸值主人志 다행히 주인이 잊어버려서
 五十三年借 오십삼 년을 빌린 것이네.

- 〈柳掌令叙五挽〉 제2수¹³⁾

天厚李氏家 하늘이 이씨 가문 후대하여서
 借寶特破慳 특별히 인색치 않게 보물을 빌려준 거니
 暫有猶爲幸 잠시 동안 지님도 외려 다행인데
 安能久不還 어찌하여 오래도록 돌려주지 않으리오.

- 〈李參奉源誠挽〉 제2수¹⁴⁾

위의 시들에서 망자는 모두 보배(寶)로, 즉 경제적인 재화로 비유된다. 유서오에 관한 위의 시에서 망자는 익명의 주인(主人)에게서 빌린 존재로, 이원성에 관한 다음 시에서는 하늘(天)에게서 빌린 존재로 지칭된다. 여기에서 명확한 신(神)의 관념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인간 존재의 ‘주인’은 따로 있고, 우리는 맥락상 조물주와 하늘(天) 등의 동아시아적 초월자를 상기하게 된다.

어떤 사람의 존재를 공동체가 조물주, 하늘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보면, 주인이 빌려준 대상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신적 타자는 귀한 보배를 그저 일정한 시간 동안 빌려준 것일 뿐, 완전히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 인용한 이원성에 관한 만시나 이언진에 관한 만시¹⁵⁾에서 처럼 주인은 귀한 보배를 오래 밖에 두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요절은 불행이라고 탓할 수가 없는 일이 된다. 유서오가 53년이라는 짧지만은 않은 삶을 산 것은 주인이 자신이 보배를 빌려준 사실을 깜빡 잊은 운 좋은 경우일 따름

13) 李用休, 『惠襄居士詩集』, 121쪽; 李用休, 『歲數集』, 8쪽. 『惠襄居士詩集』에는 이 시가 총 1제 2수 중 제1수로 되어 있다.

14) 李用休, 『惠襄居士詩集』, 133쪽.

15) “無故得千金, 其家必有災. 矧此希世寶, 焉能久假哉.” 李用休, 〈李虞裳挽〉 제3수, 『惠襄居士詩集』, 121쪽; 李用休, 〈李虞裳挽〉 제3수, 『歲數集』, 5쪽.

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피조물이자 차용물로서의 인간이 창조주이자 소유주로서의 신적 타자에게 반환되는 일이 된다. 정당한 권리 행사, 정당한 계약관계의 완수는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다. 통상적인 경제관념에 비춰보았을 때 합리적으로 수궁할 만한 일인 것이다. 이처럼 헤환은 죽음을 신적 타자와의 경제 문제로 전환하면서, 죽음에 합리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시인이 이처럼 죽음을 신적 타자의 경제적 권리에 귀속시키는 종교-경제학적인 정의를 시도함으로써, 애도시로서의 만시는 새로운 전망을 얻게 된다. 헤환의 관점에 따르면 죽음은 신적 타자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에 어떤 사람에게나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일이다. 죽음은 개인과 가문에 발생할 수치스러운 비극이나 불행이 아니므로 애도시가 비탄으로만 점철될 이유가 없게 된다.

헤환의 만시를 기준으로 하면 애도시는 오히려 ‘죽음 이후’에 대해 희망적인 사유를 시작할 수 있는 장(場)이 된다. 죽음은 재화가 소유주에게로 되돌려진다는 면에서 존재의 위치이동일 뿐이다. 헤환의 만시에서는 구원(九原), 구천(九天), 명계(冥界) 등의 동아시아적인 사후세계가 드물게 언급된다. 헤환은 권암에 관한 만시에서 권암의 자호인 “尸菴”을 빌려 인간의 존재란 결국 시체에 다름 아님을 역설하고, 죽음과 삶을 하나의 이치로 보고 있다.¹⁶⁾ “예부터 죽지 않은 자는 없다.”¹⁷⁾ 죽음과 삶은 서로 격절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떠나간 이는 우리의 일상처럼 신적 타자가 관장하는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망자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헤환의 사생관은 인간 존재의 사후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시각으로 이어진다. 떠나간 이가

16) “特脫動作機，死與生一理。觀公所自號，其意已曙此。” 李用休，〈挽權尸菴巖〉 제4수，『惠養居士詩集』，132쪽.

17) “我謂吳氏父，有辭慰足下。試登九原望，古無不死者。” 李用休，〈挽吳斯文錫一〉 제3수，『惠養居士詩集』，121쪽.

세계의 어딘가로 옮겨졌다면, 그가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죽음을 인간 존재의 단절이나 종말로 간주하지 않는 혜환의 관점에서 죽은 이의 귀환 혹은 소생은 얼마든지 가정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혜환의 지기였으며 시서화 삼절로 꼽히기도 했던 연객(煙客) 허필(許泌, 1708~1768)에 관한 만사에서 망자의 사후 문제는 실제로 흥미롭게 형상화되어 있다.

朧因爲朧還	그믐달이 초승달 되어 돌아오고
汐又作潮還	석수(汐水)는 조수(潮水)되어 돌아오는데
惟人異於是	사람만은 이와 달라서
魂去不復還	넋이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네

- 〈許煙客汝正輓 名泌字汝正〉 제1수¹⁸⁾

위의 시에서 시인은 사람의 죽음을 자연 현상과 견주어본다. 조물주가 만든 것으로서의 자연(被造), 천리(天理)가 발현되는 세계로서의 자연은 인간 삶의 이치를 밝히는 데에 좋은 비교 대상이 된다. 시인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은 자연에는 반복과 귀환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점이다. 그믐달-초승달(朧-朧)과 같은 천체나, 석수-조수(“汐-潮”) 같은 자연 현상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그렇다면 자연의 이치와 동일한 이치에 따라 생겨난 인간 역시, 보름이나 한나절처럼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올 법하지 않은가? 떠나감과 돌아오미가 짝을 이루는 자연에 비춰볼 때, 인간은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는 않는 유일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진 대상들이 사실은 동일한 것의 반복 혹은 재출현이라는 이 시의 주제는 인간 존재의 부활 문제와 관련된다. 이것은 한 존재가 끊임없이 다른 존재들로 태어나는 불교적인 윤회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불교적인 사생관에서 지속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아

18) 李用休, 『惠養居士詩集』, 121쪽; 李用休, 『歲數集』, 6쪽.

니라 존재의 ‘업’이라는 도덕적 한계이기 때문이다.

마치 인간이 죽음 이후에는 타인들의 기록과 증언에 의해 존재하듯이, 혜환 자신의 시문집이 아닌 정약용의 문집에 실려 전해지는 다음의 만시에서도 사후의 부활 문제는 제기된다.

萬古有一疑案	만고에 하나의 의문점이 있으니
未知死如何生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알지 못함이네.
君欲親往以決	그대가 몸소 가서 결판내려고
飄然棄世獨行	홀쩍 세상 버리고 홀로 떠났다?

- 〈失題〉¹⁹⁾

죽음 이후에 잊혀져가는 인간 존재의 운명처럼, 제목이 밝혀져 있지 않은 만시이다. 이 시에서 혜환은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죽은 존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분명한 것이다. 다만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미제의 안건으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방법(“如何”)의 문제다.

작품들로 보았을 때, 혜환은 자신이 사숙했던 숙부이자 스승인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과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서학(西學) 담론을 종교로서 내면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신적 타자의 경제적 주권과 결부시켜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그 논리적 맥락 속에서 죽은 이의 ‘다시 돌아옴(復還)’ 혹은 ‘살아남(生)’이 가능하다고 보는 점은 구세주의 대속(代贖)을 통한 기독교적인 부활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

사실 서학은 기독교의 3대 종파 중에서 가톨릭, 특히 교부신학적인 중세 가톨릭 담론을 한역(漢譯)한 것이다. 그래서 유학을 통해 진리에 대한 학문적 담론을 오랜 시간 축적해온 조선 후기의 유학자들에게는 서학이 문화적인 신기성(novelty)과는 별개로 충분히 ‘현대적’이지 않은 비합리적 담론으로 여겨질

19) “惠賓居士爲人作輓詩曰：‘萬古有一疑案，未知死如何生？君欲親往以決，飄然棄世獨行。’
丁若鏞，『與猶堂全書補遺』，『餽餽錄』三，『定本 與猶堂全書』，다산학술문화재단，2012，180쪽.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고 본다. 신유학(朱子學)에 대한 또 하나의 신유학으로서 이미 현대화 된 학문인 실학(實學)은 문명사적으로 보았을 때 차라리 근대주의적 기독교로서의 프로테스탄티즘과 대응될 수 있을 것이다.

실학자이자 창조적 개인으로서의 혜환 이용휴는 유행하는 담론들에 외삽적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²⁰⁾ 유학 자체의 인격적인 천(天) 개념에 기반을 두고,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방법론을 통해 죽음에 대한 종교-경제학적 정의를 도출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의 종교-경제학적 변증은 우리가 인간의 유한성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성이 아닌 논리에서 오는 독특한 위로를 선사한다.

2.2. 애도하는 가족에 대한 기억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혜환은 신적 타자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통념과는 다른 애도시의 주제를 제시하였다. 혜환 자신이 죽음의 문제를 새로운 사유와 발견을 통해 극복했다고 해도, 모든 이들이 그와 같이 죽음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혜환은 조물주 등으로 표상되는 신적 타자와 천리(天理)를 반영하고 있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격적인 하늘(天)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질서 속에서의 문제이다. 혜환은 자신이 죽음의 의미를 깊이 연구했다고 해서, 죽음의 부정성을 극복할

20) 혜환 이용휴의 산문 작품들을 서학 담론과 결부시킨 기존 논의에서는 이용휴 산문의 '조물주'를 문학적 수사나 일종의 외물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하지영, 「이용휴 문학에 나타난 서학적 개념의 수용과 변용」, 『동양고전연구』 65집, 동양고전학회, 2016, 84쪽.

그런데 문학에서 수사는 내용의 표현이자 형식 자체이다. 혜환 이용휴의 시와 산문 전체를 살펴보면 조물주는 상당히 반복적으로 호명되는 중요한 형상이다. 혜환의 만시에 나타나는 신적 타자와 부활에 대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면, 혜환의 외아들인 이가환(李家煥, 1742~1801)과 외손자인 조선 최초의 천주교도 이승훈 베드로(李承薰, 1756~1801)가 모두 신유박해(1801) 당시 조선 교회의 순교자들이 되었다는 전기적인 사실이 그다지 이질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들이 정쟁(政爭)에 의해 희생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말이다.

수 없는 타인들의 비탄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질서 속에서 겸손한 애도의 형식을 모색한다.

애도시로서의 만시는 의례의 사회적 관습에 충실한 시이다. 애도시는 사실 죽은 이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시이기도 하다. 애도자인 시인 자신도 그렇지만 특히 만시를 읽게 될 죽은 이의 가족과 지인들, 훗날의 독자들은 만시의 중요한 대상이다. 만시는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창작되는 매우 공적인 시 장르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만시를 포함한 애도시가 가지는 매우 중요한 기능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기존 논의에서는 주로 망자와 애도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애도시에 대해 설명해 왔다. 이 절에서는 애도자와 공동체의 관계에 주목해 보려 한다.

혜환에게 글자를 묻곤 하던 김치온이라는 이의 아버지를 위해 혜환이 써준 1제 1수의 만시는 이 장르에 죽은 이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기능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我只識其子	나는 그 아들만을 알고 있기에
以子知父賢	아들 통해 아버지의 현명함을 알았으니
沃壤生嘉穀	옥토에서 좋은 곡식 나는 것을
驗之理固然	징험하니 이치가 진실로 그러하네.

- 〈挽金僉知其子致溫 嘗來問字〉

문장으로 유명한 이들에게는 일면식도 없는 이들의 만시까지 써달라는 부탁이 줄을 이었다고도 한다. 혜환도 자신이 만나본 적 없는 한 문하생의 부친을 위해서 만시를 쓰고 있다. 형식적인 작품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시에는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망자 본인은 자신에 관한 만시를 읽을 수가 없다. 만시를 읽는 실제의 독자는 망자의 주변 인물들이다. 위의 시에서 시인이 가장 친밀하게 위로하는 사람은 바로 만시를 그에게 청했을 고인의 아들 치온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시에는 최소한 두 겹의 위로가 존재한다. 망자가 좋은 곡식을 길러내는 옥토처럼 훌륭한 아버지였다는 진술은 망자에 대한 칭양이다. 그것을 시로써 접한 고인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훌륭하게 평가된다는 점에서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동시에 고인의 아들은 그 옥토에서 자라난 좋은 곡식이고 현명한 인재이다. 글을 가르쳐주던 스승의 다정한 평은 아버지를 잃고도 앞으로 계속 해서 살아가야 할 문하생 치운을 위한 따뜻한 격려이기도 하다. 죽음이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음으로써 생긴 가족 공동체의 위기는 이렇게 의례의 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시 속에서 상징적으로 해소된다.

혜환은 만시에서 애도자로서의 자신이 가지는 비중은 최소화한다. 제 3자로서의 시인 자신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은 결코 절대시되지 않는다. 죽은 이의 가족 곁에서 시인의 감정은 극도로 절제되고, 대신 그 가족의 비탄이 전경화된다. 혜환의 만시에서 재현되는 애통함이 있다면 그것은 유족들의 애통함이다.

혜환은 슬픔과 아픔을 겪는 유족들을 대신해서 마치 상주의 한 사람처럼 시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죽은 이의 가족들은 상례의 주체이기 때문에 의례를 수행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곡자시(哭子詩)나 곡형제시(哭兄弟詩)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혜환은 제 3의 애도자로서 죽은 이의 가족들을 중요한 시적 화자로 삼아 마치 대신 곡자시나 곡형제시를 쓰듯 자신의 만시를 쓴다.

죽은 이와 혈연으로 맺어진 남은 가족들은 죽은 이와 골육(骨肉)을 나눈 존재들이다. 죽은 이의 혼백이 곧 흩어진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氣)를 나눈 그의 가족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한, 죽은 이의 육체성은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혜환은 상례(喪禮)를 존중하는 예학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하여, 죽음이 결코 파쇄할 수 없는 가족 공동체의 긴밀한 연결망을 의도적으로 재현한다.

우선 혜환은 자식의 죽음을 애도하는(哭子) 아버지들의 모습을 기억한다.

其父恐兒驚 그 부친은 아이가 놀랄까 두려워서

不撫兒屍哭 아이 시신 만지면서 곡을 못하고
吞聲臥向壁 소리 없이 울면서 벽을 향해 누우니
肚裡淚漉漉 뱃속에서 눈물이 뚝뚝 흐르리.

- 〈申進士史權挽〉 제5수²¹⁾

선비 한응일에 관한 만시인 〈韓斯文應一挽〉이나 진사 신사권에 대한 위의 만시 등은 혜환이 대신 쓴 곡자시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인용한 〈申進士史權挽〉의 제5수에서는 안타깝게도 ‘슬픔의 공동체’가 된 한 가족의 모습이 그려진다. 돌아간 이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있다. 시인이 지금 고인의 가족들이 슬퍼할까 두려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듯이, 고인의 아버지는 고인의 아들, 즉 자신의 손자가 놀랄까봐 마음 놓고 곡을 하지도 못한다. 혜환이 대신 쓴 이 관찰자적인 ‘곡자시’에는 두 명의 자식이 존재한다. 죽은 자식도, 남겨진 자식도 모두 가련하다. 시의 중심인물인 아버지는 자신보다 손자를 더 걱정해서 자신의 애통한 심정을 애써 억누르고 있다.

혜환이 무척 아꼈던 외손자 허질(許瓚)의 친할아버지이기도 한 허휘(許彙, 1709~1762)에 관한 만시 제2수는 대신 쓴 곡형제시에 가깝다.

昆弟六人中 형제 여섯 분 중에
君是年最少 그대가 나이가 가장 젊었었는데
僕衾覆玉貌 이불 퍼서 옥 같은 모습 덮으니
諸兄嗚嗚叫 모든 형들 어이 어이 부르짖누나.

- 〈許持平晉卿彙挽〉 제2수²²⁾

허휘에게는 集, 采, 槃, 槩, 槃의 다섯 형이 있었다.²³⁾ 혜환은 망자의 이 다

21) 李用休, 『惠寶居士詩集』, 134쪽; 李用休, 『歲曼集』, 6쪽.

22) 李用休, 『惠寶居士詩集』, 135쪽; 李用休, 『歲曼集』, 8쪽.

23) 〈陽川許氏條〉, 『午譜』元,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도서기호 성호古2518-99-18-1) 참조. 혜환은 이 중에서 바로 위의 형인 허경(許槩)에 대해서도 만시를 남기고 있다. 이 만시는 다음 장에서 다루어진다. 앞절에서 다른 또 다른 만시의 주인공인 허필(許倖) 역시 이들의 먼 친척이 된다.

첫 형제가, 자신들이 아끼는 막내 동생의 죽음 앞에서 함께 우는 장면을 찡찡하게 그리고 있다. 이불이 덮임으로써 동생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형제들은 동생의 죽음에 대해 애도할 여유도 없을 것이다. 시인은 형제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아픔을 절제된 이미지로 전하고 있다.

혜환의 만사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작품들은 바로 이 ‘죽은 이들의 가족’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혜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이의 가족’이 죽는 일이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죽은 이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이 명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 우리는 같은 운명을 겪고 있고, 우리 자신의 가족을 언젠가는 ‘죽은 이의 가족’으로 만들 것이다. 혜환은 ‘죽음 속의 죽음’, 즉 죽음의 무한상조를 인생의 정수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혜환이 가장 괴롭게 애도시를 쓰는 것은 상중(喪中)이었던 이가 죽을 때이다.

中囂三呼竟不回	지붕에서 세 번 불러도 돌아오지 않으니
護喪人坐詁書裁	호상하는 사람 앉아 부고 쓰는데
客來最是傷心處	손님 와서 가장 마음 상하는 곳은
架上衣猶未脫衰	시렁 위에 벗지 않은 상복 있음이었네.

- 〈申進士培淵挽〉 제1수²⁴⁾

天下無如死孝悲	세상에서 효에 죽는 것만큼 비통한 일 없으니
聞言未了涕先垂	듣던 말 마치기 전 눈물 먼저 흘렸네.
自然抱疚消心骨	자연히 병이 나서 몸이 사라진 거니
過毀非經豈不知	과훼는 도리가 아님을 어찌 알지 못했나.

- 〈申進士培淵挽〉 제2수²⁵⁾

진사 신배연(1735~?)에 관한 위의 만시들은 망자인 신 진사가 상중이었음

24) 李用休, 『惠寰居士詩集』, 125쪽.

25) 李用休, 『惠寰居士詩集』, 125쪽.

을 짐작케 한다. 제1수에서 상갓집에 와 상심한 사람은 혜환을 포함한 여러 조문객들이었을 것이다. 시령 위에 있는 최복(衰服)은 부모나 조부모의 상중에 입는 상복이다. 신 진사는 탈상을 하기도 전에 그만 자신의 선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조선의 예교 사회에서 상례와 제례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효의 이상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효심이 깊은 이들은 흠배개를 베고 거적에서 자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고행에 가까운 극진한 애도를 행하였다. 혜환은 과연 어떤 것이 윤리적인 애도인가에 대해 물음을 가져본다. 신배연에 관한 만시 제2수에서 혜환은 과궤(過毀), 즉 효로 인해 지나치게 몸을 상하는 것은 부모가 준 육신을 해친다는 점에서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 본다. 어떤 격식이나 형식보다도 인간의 존재 자체를 중시하는 그의 시각이 엿보인다.

이처럼 누군가가 죽은 이후, 혜환이 그 사람과 관련해 중요하게 기억하는 일화 중에는 그 사람이 생전에 치렀던 상(喪)에 관한 것이 많다. 특히 그 사람이 자식을 먼저 잃은 경우에 혜환은 죽은 이가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는 자식의 죽음을 대신하여 기억해 준다.

眞痛藏心淚眼枯	진정한 슬픔 마음에 두어 눈물조차 말랐으니
翁曾有子卽今無	당신은 자식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네.
草深花落春風後	풀 우거지고 꽃 지며 봄바람 분 뒤에
忍見空庭燕引雛	빈 뜰에 제비가 새끼 인도함을 차마 볼 수 있으랴.

- 〈韓斯文錫圭挽〉 제1수²⁶⁾

六脉俱耗二豎乘	육맥(六脉)이 모두 허해 병마 찾아 와
除非司命起何能	사명신(司命神) 아니라면 어찌 일으키리오.
夜深子舍孤螢度	깊은 밤 아들 방에 외로운 반딧불 지나노니
猶認當時讀禮燈	아직도 아들 생전에 『예기(禮記)』 읽는 불빛인 줄 알리랴.

- 〈韓斯文錫圭挽〉 제2수²⁷⁾

26) 李用休, 『惠寰居士詩集』, 127쪽.

위의 시들은 한석규라는 선비에 관한 1제 2수의 만시이다. 이 1제 2수의 시는 혜환의 만시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고 애상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혜환은 죽은 이의 삶을 현재화 하면서, 그 자식의 죽음을 시 속에 각인하고 있다. 마치 죽은 자도 슬픔만은 영원히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자식의 죽음은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한 인간의 합리적 이해력을 뛰어넘는 어지럽고 기이한 일이다. 그래서 위의 제1수에서 아버지로서의 한석규는 풀과 꽃이 자라고 바람이 불며, 제비가 새끼와 함께 어울려 사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다고 표현된다. 자연적인 질서와 그의 삶이 서로 완전히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제2수는 한석규가 세상을 떠나기 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는 상황에서,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향해 간다. 마치 부모를 앞서간 자식처럼 순서가 뒤바뀌어 시의 후반부에 묘사된 경물(景物)은 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환기한다. 아들 방을 지나는 반딧불 한 마리의 작은 불빛은, 의식이 점차 꺼져가는 아버지에게는 마치 아들이 책 읽던 때의 등불처럼 가물 거러 보이는 듯하다. 많은 책들 중에서 하필이면 『예기』를 읽는 것으로 묘사된 그 아들은 아마도 효성이 지극하고 예의가 바른 아이였을 것이다.

혜환의 만시 중에는 이처럼 죽은 이의 가족을 대신하여 쓴 곡자시나 곡형제 시처럼 보이는 작품들이 많다. ‘애도의 대리인’으로서 혜환이 보이고 있는 공동체적인 의식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한 개인의 죽음으로 인해 그가 속해 있던 가족과 문중에는 모종의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남은 가족들은 ‘아버지와 아들(父子)’, ‘형과 아우(兄弟)’ 등 망자와의 관계 속에서 기억되고 재현된다. 또, 혜환은 지인들의 모습 중 특히 상중(喪中)이었던 모습, 즉 애도자로서의 모습을 시 속에 각인시키곤 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죽은 후에도 잊을 수 없을 그들의 가족을 광범위하게 기억하고 전한다.

27) 李用休, 『惠養居士詩集』, 127쪽.

이로써 한 개인은 죽더라도 가족제도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성은 지속된다. 요컨대 가족공동체를 기억의 형태로도 지속시키는 것이 해환이 애도자-시인으로서 힘써 수행한 과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인격에 대한 예술적 해석

이처럼 만시는 존재의 망각과 죽음에 저항하는 문학의 본질을 집약해 놓은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만시를 통한 기억의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해 보자. 죽음으로 인해 누군가의 육체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 사람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조물주가 빚은 다른 자연물에 비해 특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인위적인 대상들과 비교했을 때 인간에게는 결코 소멸하지 않는 중요한 속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름이다.

刀折利不留	칼이 부러지면 예리함 남지 않고
火滅光不留	불이 꺼지면 빛은 남지 않는데
惟人異於是	사람만은 이와 달라서
身沒名則留	몸은 죽어도 이름은 남네.

- 〈許煙客汝正輓 名倂字汝正〉 제2수²⁸⁾

허필에 관한 만시 제2수에는 칼과 불이라는 대상들이 등장한다. 칼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인 예리함, 불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빛은, 각각의 대상이 파괴되거나 소멸했을 때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허나 인간은 다르다. 위의 시에서 추론해 보면 인간은 비록 형체가 그 기능을 다해도 이름이라는 속성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독특한 존재이다.

28) 李用休, 『叟數集』, 6쪽.

사실 애도시로서의 만시는 죽음에 관한 여타의 유교적 글쓰기 장르들과 마찬가지로 망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문학적 방식의 하나이다. 이때 죽은 이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는 애도시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칭양과 결부된다. 만시가 자칫 상투어구로 오해되곤 했던 것도 애도자로서의 시인이 칭양의 수사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 탓일 때가 많다.

혜환은 애도시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고인에 대한 칭양의 함의를 바꾸었다. 그의 기준에서는 세속적인 성취와 업적이 사후에도 기억되어야 할 불후의 자질은 아니었다. 이것은 학문적·실천적 진리에 대해서 진지했던 여러 유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혜환은 이광부(李光溥, 1694~1774)에 대한 만시 <李知事光溥挽>에서 고인이 정 2품 벼슬인 지사(知事)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속적 업적을 기리지 않는다. 오히려 오복(五福)의 하나로 한가로움을 꼽는다거나(제1수)²⁹⁾, 벼슬살이를 등산으로 비유했을 때 천천히 걸은 것이 궁극의 경치가 되었다는 점을 높이 친다(제3수)³⁰⁾.

혜환은 애도시에서 나타나는 관습적인 칭양을 고인에게 인격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의 작업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존재의 의미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고인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다. 혜환은 사람을 신분이나 품계에 따라 서열화하지 않는다. 혜환의 만시 중에서도 특히 잘 알려진 제자 이언진에 관한 만시 <李虞裳挽> 1제 10수는 중인이었기에 사대부 중심의 문단에서 응당한 평가만을 받을 수는 없었던 제자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형상화 한다. 혜환은 이 시에서 사람은 문학이라는 언어적 실체(實體)를 통해 불후의 존재가 됨을 역설한다. <李虞裳挽>의 두 수를 연이어 인용해 본다.

島蠻亦具眼 섬나라 남방족도 안목이 있어
得詩輒珍藏 시를 얻을 때마다 보배로 간직했으니

29) 李用休, 『惠寶居士詩集』, 130쪽.

30) 李用休, 『惠寶居士詩集』, 130쪽.

家家箱篋裡 집집마다 상자와 고리 속에
 各有一虞裳 제각기 한 사람의 이우상이 있네.
 - 〈李虞裳挽〉 제5수³¹⁾

他人以子傳 남들은 자식으로 전해지지만
 虞裳不以子 우상은 자식으로 전해지지 않네
 血氣有時盡 혈기는 다하는 때가 있으나
 聲名無窮已 명성은 궁진함이 없다네
 - 〈李虞裳挽〉 제10수³²⁾

이언진이 1763년 계미사행 당시 일본인들에게 고학(古學)에 대한 식견과 시문창수를 통해 보여준 시재(詩才)로 널리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³³⁾ 위의 〈李虞裳挽〉 제5수는 바로 이언진의 일본사행 당시의 일화를 다룬 것이다. 한 편의 시가 한 사람의 우상(虞裳)이라는 4구의 표현은 저자에게 있어서 작품과 이름이 곧 존재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상이 죽고 난 후에도 우상의 시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된다. 집집마다, 상자와 고리(“箱篋”) 속에 귀한 보물로 간직된 우상(虞裳)의 시는 그 자체로 죽지 않는 시인 자신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자신을 후세에 전한다. 그러나 육체의 혈기로 낳을 수 있는 자식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저자의 명성은 그가 진정한 문학을 남기는 한, 결코 끝이 없다. 언어는 육체의 유한성을 뛰어넘어 영원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李虞裳挽〉의 제10수는 젊어 죽은 제자를 애도하는 문학적 스승의 곡진한 애도시이다.

혜환은 그렇다면 이언진처럼 젊고 재능 넘치는 저자의 이름만을 기억했는가?

31) 李用休, 『惠寶居士詩集』, 121쪽; 李用休, 『歲數集』, 6쪽.

32) 李用休, 『惠寶居士詩集』, 121쪽; 李用休, 『歲數集』, 6쪽.

33) 박희병, 『나는 골목길 부처다 - 이언진 평전』, 돌베개, 2010, 31~105쪽 참조.

五更星漸落 오경이면 별이 점차 사라지듯이
 百年人皆去 백년이면 사람 모두 떠난다네.
 踰耆而入耄 일흔 살 넘어 팔십 줄에 드는 것은
 譬猶夜向曙 비유컨대 밤이 새벽을 향하는 것이네.

- 〈挽李承旨秀逸〉 제1수³⁴⁾

애도사에서 죽음의 시간은 관습적으로 하루 중에는 저녁이나 밤, 계절로는 겨울 등 어둡고 추운 시간으로 비유되는 경우가 많다.³⁵⁾ 생명이 시들어가고 소멸하는 삭막한 배경이 죽음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혜환의 만시에서는 죽음이 다른 시간 이미지를 띤다. 승지 이수일(李秀逸, 1705~1779)에 관한 위의 만시에서 새벽 4시 전후인 오경(五更)은 별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사람의 사라짐, 즉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시간이 된다. 그러나 시인은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 별의 존재를 본다.

위의 시에서 사람의 수명이 밤이 아닌 새벽과 더 가까이 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인간이 누려야 할 수(壽)는 환하게 동이 뜨기 직전의 시간, 즉 다가올 희망과 영광을 기다리는 시간인 것이다. 그래서 일흔에서 여든으로 넘어가는 것은 동 터 올 새벽으로 나아가는 일이 된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결부되지 않는다. 대신 빛의 시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함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혜환은 ‘평범하게’ 나이 들어간 이들의 이름에도 개성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혜환의 만시 중에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한 재야의 선비들을 위한 작품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혜환은 세상에서 큰 벼슬을 한 적이 없고 명예를 구하지 않았던 처사들의 삶을 불행하다고 여기거나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현실에 ‘부재’했던 세속적인 명예를 헛되이 과장하는 대신, 그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인격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데에 집중한다.

34) 李用休, 『惠寰居士詩集』, 131쪽; 李用休, 『歲數集』, 7쪽.

35) 최재남, 앞의 논문, 128쪽.

蚕老死不吐 누에가 늙어 죽도록 토해내지 않았으니
 誰知腹絲富 배에 실이 가득함을 누가 알리오
 若吐染絳緣 만약 토해내어 붉고 푸르게 물들었다면
 當作黼黻繡 보불(黼黻) 같은 자수가 되었을 거네.

- 〈許鶴洲繫挽〉 제2수³⁶⁾

자신의 벗인 허경(許繫, 1707~1781)을 위한 만사에서 혜환은 고인을 누에에 비유한다. 비록 그 누에는 아무 것도 눈에 보이게 토해내지 않았지만 뱃속에 미처 풀어내지 못한 실이 가득했을지도 모른다. 학문만 추구했을 뿐 벼슬하지 못한 선비는 살림이 넉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혜환이 실이 넉넉했을 것이라며 쓴 “富”라는 글자도 위로가 된다. 누에가 실을 토해냈다면, 그것은 아름답게 물을 들인 후 천자의 옷에 수놓았던 보불(黼黻) 무늬의 자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혜환은 세속에서 대접받을 만한 명예를 갖지 못했던 친구 노인의 삶을, 예술적인 상상력으로 채우고 있다.

제목에서부터 진정한 군자로서의 원로에 대한 경모(敬慕)가 느껴지는 아래의 만시 역시 ‘숨어있는 이름’을 텍스트의 이미지로 구현해낸 예라 하겠다.

全匹雪白練 온 필의 비단을 흰 눈같이 다듬어
 曬之龍門阜 용문의 언덕에서 햇볕에 쪼였기에
 八十五年來 팔십오 년 이래
 不曾一塵受 한 번도 티끌 묻은 적이 없었네.

- 〈處士趙公輓 公 諱來淳 蓋古之君子 今世之所屢見者也〉 제2수³⁷⁾

마치 ‘비어 있는’ 세속적 명예의 자리를 채우기라도 하듯 제목이 무척 긴 작품이다. “처사(處士) 조공(趙公)에 대한 만사. 공은 휘가 래순(來淳)이다. 대개 옛날의 군자로 지금 세상에서는 드물게 볼 수 있는 사람이다.”

36) 李用休, 『惠襄居士詩集』, 132쪽.

37) 李用休, 『惠襄居士詩集』, 134쪽; 李用休, 『歲數集』, 7쪽.

85년간 처사 조래순 어른신이 살았던 삶은 흰 눈처럼 깨끗하게 다듬어진 온전한 비단 한 필로 비유되고 있다. 그의 삶은 아무런 색이 들지 않고 어떤 모양으로 재단되거나 바느질 되지도 않은 옷감과도 같다. 잉어들이 용이 되기 위해 머리를 돌에 찢으며 물살을 거스르는 용문(龍門) 옆 언덕(阜)에, 순백의 비단 한 필은 조용하고 깨끗하게 펼쳐져 있다. 혜환은 티끌 하나 묻지 않은 그 순수한 옷감의 의미를 중요하게 기억한다. 흰 머리의 노인이 살아온 삶은 가장 순수한 텍스트 그 자체로서 생생하게 펼쳐져 있다.

혜환은 이처럼 고인들의 삶을 문학적인 시선으로 해석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중인 역관, 출세하지 못한 사대부에 그쳤을지도 모르는 이들에게서 저자로서의 의미, 가능성으로 충만한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발견해 내고 있다. 여기에서 애도시를 쓰는 혜환은 비평적인 감수성을 심분 보여준다. ‘저자’와 ‘텍스트’의 의미를 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비평가의 일이기 때문이다. 혜환의 만사에서 인간의 삶은 이처럼 실이나 비단처럼 직조의 질감(texture)을 가진 텍스트로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 평가가 비평적인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혜환 이용후의 해석은 문학적인 역설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미완성처럼 보이는 27세 젊은 시인의 삶을 영원한 명성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재현된다. 한편, 벼슬길에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각각 75세와 85세의 수(壽)를 누린 노인들의 삶은 누에가 속에 품은 실이나 깨끗하게 마련한 비단 한 필처럼 상상과 가능성의 시간으로 비유된다. 요절이 완성일 수도 있고, 장수에도 여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의 죽음이든 조건적 한계에 속박되지 않는 개성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4. 꺾이지 않는 영혼의 시

애도문학은 흔히 문학적으로 개성이 없는 의례적인 문학으로 여겨진다. 그

런데 사실 애도문학은 그 존재 자체로 상당한 의의를 갖고 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잊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자중하게 마련이다. 죽음이 가져온 공동체의 두려움과 슬픔을 깨뜨리고, 죽은 이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있는 이들을 위무하는 애도문학은 한계를 초월하려 하는 인간의 의지와 꺾이지 않는 영혼을 나타내준다.

문학을 개인의 감정을 자폐적으로 토로하는 행위에 한정한다면 만사와 같은 공적 문학 혹은 공동체적 문학은 예술적인 가치가 마치 낮은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혜환의 만시가 풍부하게 형상화하고 있듯이 공적인 문학은 타인과 사회의 역사적 조건으로부터 저자의 철학적 사유와 미학적 표현이 촉발되는 흥미로운 과정을 보여준다.

혜환은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저자로서, 비탄에 함몰되지 않는 희망의 애도시를 역설적으로 창작했다고 보았다. 흔히 비탄과 칭양이 주가 되는 많은 애도시 작품들과 달리, 혜환의 만시에서는 애도자 본인의 감정이 절제되고 상투적인 미사여구가 배제된다. 대신 죽은 이와 그 가족들을 위한 위로라는 공적 기능이 강조됨을 볼 수 있었다. 이때의 위로란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위안에 가까운 것이라기보다, 죽음의 본질을 통찰하는 데에서 오는 ‘인식의 전환’에 가까운 것이었다.

혜환은 유교적 맥락에서의 조물주나 하늘(天) 같은 신적 타자에게서 죽음의 논리와 부활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죽음이 가진 부정성을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부활에의 희망을 문화 내적으로 발견했다는 점에서 혜환의 객관적 통찰은 학문적·문화적으로 심원한 의미를 가진다. 또, 혜환은 망자의 가족들이 애통해 하는 모습이나 고인이 생전에 상중이었던 모습을 중요하게 재현함으로써 타자의 비탄을 도외시하지 않는다. 죽음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족공동체를 위로하고 재현함으로써,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한 예학의 진정한 도(道)가 시적으로 구현된다.

비탄과 더불어 애도시의 중요한 요소인 칭양은 혜환의 시에서 존재에 대한 미학적인 의미 부여, 즉 해석의 문제로 전환된다. 신분이냐 연령의 고하와 상

관없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혜환의 윤리적 태도가 미학적으로 승화되는 지점이라 하겠다.

요컨대 혜환의 만시는 애도문학에 대한 고정관념을 상회하는 것으로, 수직-수평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타자지향적으로 쓰임으로써 윤리학과 미학이 조화롭게 결합된 보기 드문 문화적 유산(遺産)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로서, 이 창조적인 영혼이 남긴 희망의 시를 읽는다.

참고문헌

1. 자료

- 李用休, 『惠寰居士詩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近畿實學淵源諸賢集』 2 영인본, 2002.
- 李用休, 『惠寰雜著』,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近畿實學淵源諸賢集』 2 영인본, 2002.
- 李用休, 『岌叟集』, 한국문집총간 223, 민족문화추진회, 1999.
- 이용휴, 조남권·박동욱 옮김, 『혜환 이용휴 시 전집』, 소명출판, 2002.
- 『午譜』 元,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도서기호 성호古2518-99-18-1).

2. 논저

- 김동준, 「혜환 이용휴의 오언고절 연작 연구」, 『국문학연구』 7집, 국문학회, 2002, 237~270쪽.
- 김동준, 「이용휴 한시의 이지적 성향과 새로운 시적 형식」, 『진단학보』 95집, 진단학회, 2003, 257~284쪽.
(UCI: G704-000336.2003..95.009)
- 박동욱, 「혜환 이용휴 挽詩攷」, 『온지논총』 7권 1호, 2001, 온지학회, 2001, 115~131쪽.
- 박용만, 「이용휴의 시문학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 박희병, 『나는 골목길 부처다 - 이언진 평전』, 돌베개, 2010.
- 안대회, 「한국 한시와 죽음의 문제 - 조선후기 輓詩의 예술성과 인간미」, 『한국한시연구』 3집, 한국한시학회, 1995, 49~80쪽.
-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2002.
- 윤인현, 「고려·조선 儒者의 輓詩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56집, 한국한문학회, 2014, 107~144쪽.
(UCI: G704-000273.2014..56.009)
- 정약용, 『定本 與猶堂全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최재남, 「한국 애도시의 구성과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하정승, 「고려후기 挽詩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 목은 이색의 시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50집, 동방한문학회, 2012, 35~69쪽.

(UCI: G704-000973.2012..50.002)

하정승, 「이승인의 挽詩類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한국한시연구』 21집, 한국한시학회, 2013, 113~151쪽.

(UCI: G704-000619.2013..21.002)

하지영, 「이용휴 문학에 나타난 서학적 개념의 수용과 변용」, 『동양고전연구』 65집, 동양고전학회, 2016, 63~89쪽.

(UCI: G704-001739.2016..65.002)

| Abstract |

Expectations of Hope : On Yi Yong-hyu's Elegies

Hur, Yoon-jin

It is often said that consolatory literature such as elegy or bereavement poems may lack artistic singularity because its conventions and opportunities of creation are far more dominant than its aesthetics. On the contrary, the elegies of Yi Yong-hyu(李用休, 1708-1782) transform the conven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genre into the ethics of other and achieve the ideal marriage of ethics and aesthetics.

The poet reshapes the view on death in terms of an economic metaphor comparing divine other such as the creator(造物) or the Heaven(天) to the owner of human being. According to his observation, death means the return of the borrowed object to his/her owner, there is no reason to lament excessively for the dead. The hopeful expectation for resurrection is unveiled instead. Other than expressing his own grief, Yi focuses on representing the dead and the bereaved all together and thereby conserving the communality of family and society in his elegies.

From an ethical perspective, Yi also conducts an aesthetic interpretation of the personality of the dead instead of admiring mundane standards of one's accomplishments.

In sum, the elegies of Yi Yong-hyu triumph over pessimist or nihilist views on death with an ethical vision; they connect divine other, the dead, the bereaved and the lamenting poet with readers-of-the-moment as an on-going community. Yi's elegies are great expectations of hope left in Korean cultural history.

Key words : Yi Yong-hyu(1708~1782), elegy, lamentation, laudation, ethics and aesthetics

투고일 : 2017년 7월 15일 심사기간 : 8월 2일 - 8월 15일 게재확정일 : 8월 16일

www.kci.go.kr